

문학개념어 기출 분석 자료
(2022 수능, 2023 6평, 2023 9평)

성남고 조경민

이 자료는 오르비 '성남고 조경민'의 저작물입니다.

이 자료의 일부는 추후 정식으로 출판될 예정입니다. 무단 수정, 배포를 엄격히 금합니다.

수험생이 학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으나,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5. 최근 기출 문학 개념어 분석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22번, 25번, 28번, 32번)

[22번, 25번]

(가)

아아 아득히 내 첩첩한 산길 왔더니라. 인기척 끊이고
새도 짐승도 있지 않은 한낮 그 화안한 골 길을 다만 아
득히 나는 머언 생각에 잠기어 왔더니라.

백화(白樺) 앙상한 사이를 바람에 백화같이 불리우며
물소리에 흰 돌 되어 씻기우며 나는 총총히 외롭도 잊고
왔더니라

살다가 오래여 삭은 장목들 흰 팔 벌리고 서 있고 풍설
(風雪)에 깎이어 날선 봉우리 홀 홀 홀 창천(蒼天)에 흰
구름 날리며 섰더니라

썩아 — 한중일내 — 쉬지 않고 부는 물소리 안은 바람
소리 …… 구월 고운 낙엽은 날리어 푸른 담(潭) 위에 호
르르르 낙화같이 지더니라.

어젯밤 잠자던 동해안 어촌 그 검푸른 밤하늘에 나는
장엄히 뿌리어진 허다한 바다의 별들을 보았느니,

이제 나의 이 오늘밤 산장에도 얼어붙는 바람 속 우러
르는 나의 하늘에 별들은 쓸리며 다시 꽃과 같이 난만(爛
漫)하여라.

- 박두진, 「별 - 금강산시 3」 -

(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좇지는 않는다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가 하면
큰물에 우정 제 허리를 동강 내어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한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온갖 곳 온갖 사람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은 모른다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서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늘을 드리워 사람들이 땀을 식히게도 한다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 신경림, 「길」 -

(다)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 초롱초롱 맑게 고인 샘물 같은
눈으로 나는 지금 당신께서 보내 주신 맑고 고운 수선화 한
폭을 들여다 봅니다. 들여다보노라니 그윽한 향기와 새파란
꿈이 안개같이 오르고 또 노란 슬픔이 연기같이 오릅니다.
나는 이제 이 긴 밤을 당신께 이 노란 슬픔의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까.

남쪽 바닷가 어떤 낡은 항구의 처녀 하나를 나는 좋아
하였습니다. 머리가 까맣고 눈이 크고 코가 높고 목이 꽤
고 키가 호리 낭창하였습니다.

(중략)

어느 해 유월이 저물게 실비 오는 무더운 밤에 처음으
로 그를 안 나는 여러 아름다운 것에 그를 건주어 보았습
니다 — 당신께서 좋아하시는 산새에도 해오라비에도 또
진달래에도 그리고 산호에도……. 그러나 나는 어리석어
서 아름다움이 닮은 것을 골라낼 수 없었습니다.

총명한 내 친구 하나가 그를 비겨서 수선이라고 하였습
니다. 그제는 나도 기뻐서 그를 비겨 수선이라고 하였습
니다. 그러한 나의 수선이 시들어 갑니다. 그는 스물을 넘
지 못하고 또 가슴의 병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만
하고 나의 노란 슬픔이 더 떠오르지 않게 나는 당신의 보
내 주신 맑고 고운 수선화의 폭을 치워 놓아야 하겠습니
다.

밤이 아직 쉼 때가 멀고 또 복밥을 먹을 때도 아직 되
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어머니의 바느질 그릇이 있는
데로 가서 무새 형겅이나 얻어다가 알록달록한 각지나 만
들면서 이 남은밤을 당신께서 좋아하실 내 시골 육보름*
밤의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까.

육보름으로 넘어서는 밤은 집집이 인간으로 사랑으로
웃간 에도 말웃간에도 다락방에도 허텅에도 고방에도 부
엿에도 대문 간에도 외양간에도 모두 재듯하니 불을 켜
놓고 복을 맞이하는 밤입니다. 달 밝은 마을의 행길 어데

로는 **복덩이가 돌아다닐 것도 같은 밤**입니다. 닭이 수잠을 자고 개가 밤물을 먹고 도야지 깃을 들썩이는 밤입니다. **새악시 처녀**들은 새 옷을 입고 복물을 낚는다고 벌을 건너기도 하고 고개를 넘기도 하여 부잣집 우물로 가서 반동이에 옹패기에 찰락찰락 물을 길어 오며 별 같은 이야기를 **자갈자갈** 하는 밤입니다. 새악시 처녀들은 또 복을 가져오노라고 달을 보고 웃어 가며 살췍이같이 여우같이 **부잣집**으로 가서는 날쌔기도 하게 **기왓골의 기왓장을 벗겨 오고** 부엌의 솔뚜껑을 들어 오고 곱새담의 짚날을 뽑아 오고……. 이렇게 **허물없는 즐거움** 속에 **끼득깨득** 하는 그들은 산에서 내린 무슨 암짐승이 되어 버리는 밤입니다.

- 백석, 「편지」 -

* 육보름 : 정월 대보름 다음날.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 ③ 영탄적인 어조로 대상에서 촉발된 인상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예스러운 종결 표현으로 고풍스러운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 ⑤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시간의 경과를 보여 주고 있다.

25.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서 ‘이득히’, ‘왔더니라’를 반복하여, ‘침침한 산길’과 ‘머먼 생각에 잠기’는 화자의 내면을 조용시키고 있다.
- ② 2연의 ‘물소리에 흰 돌 되어 씻기우며’에서, 자연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3연의 ‘오래여 삭은 장목들과 ‘풍설에 깎이어 날선 봉우리’를 통해, 자연의 유구함에서 풍기는 분위기를 표상하고 있다.
- ④ 3연의 ‘홀 홀 홀’, 4연의 ‘쫓아’, ‘호르르르’와 같은 표현으로, 자연의 풍경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하고 있다.
- ⑤ 5연의 ‘동해안’과 6연의 ‘산장’이라는 공간의 대조를 통해, 장소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태도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오르비 성남고 조경민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 ③ 영탄적인 어조로 대상에서 촉발된 인상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예스러운 종결 표현으로 고풍스러운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 ⑤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시간의 경과를 보여 주고 있다.

선지 분석

①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판단 방법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은 모든 종류의 비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직유, 은유, 의인, 환유 등등... ‘빗대어 표현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다른 것에 비유하여 표현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문학 작품은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냅니다. 문학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그대로 말하면 별로 문학적이지 않겠죠. 다들 나름의 비유를 사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하려 할 것입니다.

(가)는 ‘백화같이’, ‘낙화같이’에서 직유법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나)는 작품 자체가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23번 문제의 <보기>를 확인해봅시다.

... (나)에서 화자는 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자신의 관점에만 치우쳐 있어서 내면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일깨우고 있다. ‘뉘’와 ‘안’을 대비하여 내적 성찰의 중요성을 이끌어내는 길의 상징적 의미를 진술함으로써, 길에 대해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나)에 나타난 ‘길’ 자체가 상징적인 것이고, 따라서 ‘내적 성찰’과 관련된 주제를 빗대어 표현한 것이 (나) 작품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는 자신이 좋아했던 ‘처녀’를 수선화로 비유하여, 대상인 처녀의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따라서 세 작품 모두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사용한다면 당연히 대상의 속성을 설명하는 것이니 맞는 선지네요.

판단 팁

이렇게 (가)~(다) 세 지문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는, 매우 높은 확률로 일반적이고 뻔한 표현 방식이 답이 됩니다. 특수한 표현 방식의 경우, 세 지문 모두에 적용되기 힘들 테니 당연한 일이지요. 이 문제처럼 ‘비유를 사용한다’라든지,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든지, ‘색채어를 사용한다’라든지... 특이한 표현법은 답이 되기 어렵습니다.

②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판단 방법

일단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이 나왔는지를 확인해봅시다. (다)는 일단 다음의 <보기>만 봐도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이 나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쓰는 편지 형식의 이 수필에서 글쓴이는 개인적 경험과 공동체적 경험으로 대비되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준다. 수선화에서 연상된 이야기가 글쓴이에게 슬픔을 환기하는 기억이라면, 고향의 풍속 이야기는 일탈이 용인되는 유쾌한 축제로 그려진다. 이를 통해 독자는 슬픔과 즐거움이라는 삶의 양면성을 경험하게 된다.

‘기억’, ‘고향’이라는 단어를 보고 ‘과거의 회상’이 나타났다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 (나)에는 딱히 과거 회상이 나타나있지 않으므로, 틀린 선지이네요.

③ 영탄적인 어조로 대상에서 촉발된 인상을 표현하고 있다.

판단 방법

‘영탄적 어조’가 나타난다면 어떤 대상에 대한 인상,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니, 이 선지에서는 ‘영탄적 어조’가 나타났지만 확인하면 선지 뒷부분은 판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에는 ‘아아’와 같은 영탄적 어조가 있지만, (나), (다)에서는 ‘영탄적 어조’를 찾을 수가 없네요. 또한 (나), (다)는 분위기 자체가 정적이고 담담해서 ‘영탄법’이 어울리지 않는 것도 같습니다.

④ 예스러운 종결 표현으로 고풍스러운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판단 방법

‘예스러운 종결 표현’은 ‘옛날스러운 종결 표현’을 말하는 것이니, 현대에 잘 쓰이지 않는 종결 표현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고풍스럽다’는 사전적 뜻 자체가 ‘예스럽다’이므로, ‘예스러운 종결 표현’만 찾으면 선지 뒷부분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는 ‘더나라’라는 종결 표현을 사용하는데, 아무리 봐도 현대에는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건 ‘예스러운 종결 표현’이 맞네요. 그러나 (나)의 ‘-나다’, (다)의 ‘-습니다’는 현대에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종결 표현이므로, ‘예스러운 종결 표현’이라고 볼 수 없겠네요.

⑤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시간의 경과를 보여 주고 있다.

판단 방법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먼저 찾고, 그게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이 나타났다고 해서 ‘시간의 경과’가 늘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봄을 나타내는 표현을 썼다가 가을을 나타내는 표현을 이어서 쓴다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것이 맞지만, 한 계절에 대한 이야기만 나온다면 ‘시간의 경과’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가)는 ‘구월’이라는 말을 통해 구체적인 계절, 시간을 제시해주었고, 이어 ‘낙엽’이라는 가을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월에서 시간이 지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을이라는 시간적 배경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시간의 경과’는 드러나고 있지 않죠.

(나)는 ‘꽃’, ‘땀을 식힌다’라는 부분을 통해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이 맞다고 볼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시간의 경과’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다) 역시 ‘유월’, ‘육보름’에서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이 존재하지만, 여기서도 ‘시간의 경과’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세 작품 모두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은 있지만,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는 표현은 없습니다.

25.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연에서 ‘아득히’, ‘왔더나라’를 반복하여, ‘침침한 산길’과 ‘머언 생각에 잠기’는 화자의 내면을 조용시키고 있다.

② 2연의 ‘물소리에 흰 돌 되어 씻기우며’에서, 자연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③ 3연의 ‘오래여 작은 장목들’과 ‘풍설에 깎이어 날선 봉우리’를 통해, 자연의 유구함에서 풍기는 분위기를 표상하고 있다.

④ 3연의 ‘홀 홀 홀’, 4연의 ‘쌌아’, ‘호르르르’와 같은 표현으로, 자연의 풍경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하고 있다.

⑤ 5연의 ‘동해안’과 6연의 ‘산장’이라는 공간의 대조를 통해, 장소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태도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⑤ 5연의 ‘동해안’과 6연의 ‘산장’이라는 공간의 대조를 통해, 장소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태도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판단 방법

‘공간의 대조’라고 한다면 두 공간의 의미가 확실하게 대조되어야 합니다. 둘이 긍정/부정으로 대비되거나, 자연/속세로 대비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이 문제에서 ‘동해안’과 ‘산장’은 둘 다 화자가 자연과 교감하는 공간으로, 둘 모두 화자에게 긍정적인 대상입니다. 따라서 ‘공간의 대조’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태도 변화 역시 맞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화자는 일관되게 자연을 보고 그것을 자신의 내면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동일한 태도가 유지되므로, ‘화자의 태도 변화’라는 부분도 틀린 거예요.

그런 일이 있는 지 한 달쯤 지나니 내 겨드랑에 생긴 이변의 전모가 대강 드러났다. **파마늘**은 어김없이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솟구친다는 것. **방**에 있으면 쭈시고 밖에 나가면 씻은 듯하다는 것. 까닭은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것 등이었다. **의사**는 나에게 전혀 이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시간에는 내 겨드랑은 멸정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나의 괴로움은 비롯되었다. 파마늘은 전혀 불규칙한 사이를 두고 튀어나왔다. 연이틀을 쭈시다가 하면 한 일주일 소식을 끊고 하는 것이었다. 하루 이틀이지 이렇게 줄곧 밖에서 새운다는 것은 못 할 일이었다. 나는 제집이면서 꼭 **도적놈**처럼 뜰의 어느 구석에 숨어서 밤을 지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 생활이 두 달째에 접어들었을 때 나는 견디다 못해서 담을 넘어서 밖으로 나가 보았다. 그랬더니 참으로 이상한 일도 다 있었다. 뜰에 나와 있어도 가끔 뜨끔거리고 손을 대 보면 미열이 있던 것이 거리를 거닐게 되면서는 아주 깨끗이 편한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독자들은 곧 짐작이 갔겠지만, 문제가 생겼다. 내가 의료적인 이유로 산책을 강요당하게 되는 시간이 행정상의 **통행 제한**의 시간과 우연하게도 겹치는 점이였다. 고민했다. 나는 부르주아의 썩은 미덕을 가지고 있었다. 관청에서 정하는 규칙은 따라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12시부터 4시까지는 모든 **시민**은 밖에 나다니지 말기로 되어 있다.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규칙이니까 **폐어플레이**를 지키는 사람이면 이것은 소형(小型)의 도덕률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도덕률을 지키는 한 내 겨드랑은 요절이 나고 나는 죽을는 지도 모른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나’는 겨드랑이에 파마늘 같은 것이 돋으면 밤거리를 몰래 산책하곤 한다. ‘나’는 밤 산책 중 종종 다른 사람 들과 마주친다.

오늘은 경관을 만났다. 나는 얼른 몸을 숨겼다. 그는 부산하게내 앞을 지나갔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레닌*인 것을, 안중근인 것을, 김구인 것을, 아무튼 그런 인물임을 실감한 것이다. 그가 지나간 다음에도 나는 ① **은신처**에서 나오지 않았다. 공화국의 시민이 어찌하여 그런 엄청난 변모를 할 수 있었는지 모를 일이다. 나는 정치적으로 백치나 다름없는 감각을 가진 사람이다. 위에서 레닌과 김구를 같은 유(類)에 놓은 것만 가지고도 알만할 것이다. 그런데 경관이 지나가는 순간에 내가 **혁명가**였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혁명가라고 자꾸 하는 것이 안 좋으면 **간첩**이라도 좋다. 나는 그 순간 분명히 간첩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내가 간첩이 아닌 것은 역시 분명하였다. 도적놈이래도 그렇다. 나는 분명히 도적놈이었으나 분명히 도

적놈은 아니었다. 나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혁명가, 간첩, 도적놈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알 만해지는 듯싶었다. 이 맛을 못 잊는 것이구나 하고 나는 생각하였다. 나도 물론 처음에는 치료라는 순전히 **공리적인** 이유로 이 산책에 나섰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설사 내 겨드랑의 달같이 영원히 가 버린다 하더라도 이 금지된 산책을 그만둘 수 있을지는 심히 의심스럽다. 나의 산책의 성격은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누룩 반죽**처럼.

기적(奇蹟). 기적. 경악. 공포. 웃음. 오늘 세상에도 희한한 일이 내 몸에 일어났다. 한강 근처를 산책하고 있는데 겨드랑이 간질간질해 왔다. 나는 속옷 사이로 더듬어 보았다. 털이 만져 졌다. 그런데 닿임새가 심상치 않았다. 털이 괜히 뽀뽀하고 잘 묶여 있는 느낌이다. 빗자루처럼. 잘 만져 본다. 아무래도 보통이 아니다. 나는 ㉠ **바위틈**에 몸을 숨기고 윗옷을 벗었다. 속옷은 벗지 않고 들치고는 겨드랑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실소하고 말았다. 내 겨드랑에는 새끼 까마귀의 그것만 한 아주 치사하게 짝끄만 **날개**가 돌아나 있었다. 다른 쪽 겨드랑을 또 들여다보았다. 나는 쿡 웃어 버렸다. 그쪽에도 장난감 몽당뱃자루만 한 것이 달려있는 것이었다. 날개가 보통 새들의 것과 다른 점이 그 깃털이 곱슬곱슬한 고수머리라는 것뿐이었다. 흠. 이놈이 나오려는 아픔이었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그 날개를 움직이려고 해 보았다. **켓바퀴**가 말을 안 듣는 것처럼 그놈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참말 부끄러워졌다.

- 최인훈, 「크리스마스 캐럴 5」 -

* 레닌 : 러시아의 혁명가.

28.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순서를 뒤바꾸어 이야기의 인과 관계를 재구성하고 있다.
- ② 유사한 사건을 반복해서 제시하며 서술의 초점을 분산시키고 있다.
- ③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경험을 다른 인물의 시선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
- ⑤ 사건에 대한 중심인물의 내적 반응을 중심인물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28.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순서를 뒤바꾸어 이야기의 인과 관계를 재구성하고 있다.
- ② 유사한 사건을 반복해서 제시하며 서술의 초점을 분산시키고 있다.
- ③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경험을 다른 인물의 시선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
- ⑤ 사건에 대한 중심인물의 내적 반응을 중심인물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① 시간의 순서를 뒤바꾸어 이야기의 인과 관계를 재구성하고 있다.

판단 방법

‘시간의 순서를 뒤바꾸어’라는 표현이 나오면, 현재에서 과거로 이동하는 부분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봅시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그런 장면을 찾을 수가 없고, 이 작품은 시간의 순서대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틀린 선지입니다.

‘인과 관계를 재구성’한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가령 현재의 사건이 결과이고 과거의 사건이 원인일 때, 결과로 일어난 사건을 먼저 제시하고 그 원인인 과거의 사건을 나중에 제시하는 것이죠. 따라서 ‘시간의 순서를 뒤바꾸어’야 인과 관계가 재구성될 수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② 유사한 사건을 반복해서 제시하며 서술의 초점을 분산시키고 있다.

판단 방법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어 나타났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사건이 순차적으로 제시될 뿐 ‘유사한 사건의 반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서술의 초점’도 분산되지 않습니다. 즉 ‘나’라는 1인칭 서술자의 시점으로 전개되기에, 서술의 초점도 일관되게 유지되네요.

③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판단 방법

선지 ②와 마찬가지로, 서술자는 한 명으로 일관되게 유지하므로 서술자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같은 사건을 여러 서술자의 시점으로 조명한다면 ‘사건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명’도 맞는 선지이겠지만, 여기서는 이것도 맞게 판단할 수 없네요.

④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경험을 다른 인물의 시선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

판단 방법

이것 역시 선지 ②, ③과 마찬가지로 서술자가 한 명으로 유지되므로 ‘다른 인물의 시선’을 맞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간의 이동’은 일부 나타나긴 하네요.

⑤ 사건에 대한 중심인물의 내적 반응을 중심인물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판단 방법

‘중심인물’은 당연히 서술자이자 주인공인 ‘나’입니다. 이런 1인칭 서술에서는 서술자의 ‘내적 반응’이 빈번하게 제시되곤 합니다. ‘내적 반응’을 제시하는 방법은, 1인칭 서술자가 ‘나’의 감정을 얘기하거나, 3인칭 전지적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심인물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한다는 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되었다는 말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

이 중에 시름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로다
 일엽편주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아는가
 <제1수>

굽어보면 천심 녹수 돌아보니 만첩 청산
십장 홍진(十丈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가
 강호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제2수>

청하(靑荷)에 밥을 싸고 **녹류(綠柳)**에 고기 꿰어
 노적 화총(蘆荻花叢)에 배 매어 두고
 일반 청의미(一般淸意味)를 어느 분이 아실까
 <제3수>

㉠ 산두(山頭)에 **한운(閑雲)** 일고 수중(水中)에 **백구(白鷗)** 난다
 무심코 다정한 것 이 두 것이로다
 ㉡ 일생에 시름을 잊고 너를 좇아 놀리라
 <제4수>
 - 이현보, 「어부단가」 -

(나)

때마침 부는 **추풍(秋風)** 반갑게도 보이도다
 말술이 다나 쓰나 술병 메고 벗을 불러
 언덕 너머 어촌에 내 놀이 가자꾸나
 흰 두건을 걸쳐 쓰고 **소정(小艇)**을 타고 오니
 ㉢ 바람에 떨어진 갈대꽃 깐 하늘에 눈이 되어
석양에 높이 날아 어지러이 뿌리는데
 갈잎에 달 내리고 **그물로**
 잔잔한 강물 속 **자린은순(紫鱗銀脣)*** 수없이 잡아내어
 연잎에 담은 회와 향아리에 채운 술을
실컷 먹은 후에
 태기 넓은 돌에 높이 베고 누웠으니
희황천지(羲皇天地)*를 오늘 다시 보는구나
 잠시 잠들어 뱃노래에 깨어 보니
 추월(秋月)이 만강(滿江)하여 밤빛을 잃었거늘
 반쯤 취해 시 읊으며 배 위로 건너오니
 강물 아래 잠긴 달은 또 어인 달인 게오
 달 위에 배를 타고 달 아래 앉았으니
 문득 의심은 월궁(月宮)에 올랐는 듯
 물외(物外)의 기이한 경관 넘치도록 보이도다
 청경(淸景)을 다투면 내 분에 두라마는
 즐겨도 말리는 이 없으니 나만 둔가 여기노라
 놀기를 탐하여 돌아갈 줄 잊었도다

㉣ **아이야** 달 들어라 만조(晩潮)에 띄워 가자
 푸른 물풀 위로 **강풍(江風)**이 짐짓 일어
 귀범(歸帆)을 재촉하는 듯
 아득하던 앞산이 뒷산처럼 보이도다
 잠깐 사이 날개 돌아 연잎배 탄 신선된 듯
 연파(烟波)를 헤치고 월중(月中)에 돌아오니
 ㉤ **동파(東坡) 적벽유(赤壁遊)***인들 이내 흥(興)에 미치
 겠는가
 강호 흥미(興味)는 나만 둔가 여기노라
 - 박인로, 「소유정가」 -

*자린은순 : 물고기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말.
 *희황천지 :伏羲씨(伏羲氏) 때의 태평스러운 세상.
 *동파 적벽유 : 중국 송나라 때 소식(蘇軾)이 적벽에서 했던 뱃놀이.

3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대구를 통해 자연 경물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한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은 자연 경물을 '너'로 지칭하여 관계를 댄음으로써 이들과 동화하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 ③ ㉢은 자연 경물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물가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④ ㉣은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아이'가 해야 할 행동을 제시함으로써 자연 경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⑤ ㉤은 유사한 놀이를 즐겼던 과거 인물과 비교함으로써 화자의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다.

3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대구를 통해 자연 경물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한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② ㉡은 자연 경물을 '너'로 지칭하여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들과 동화하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③ ㉢은 자연 경물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물가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④ ㉣은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아이가 해야 할 행동을 제시함으로써 자연 경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⑤ ㉣은 유사한 놀이를 즐겼던 과거 인물과 비교함으로써 화자의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다.

㉠ 산두(山頭)에 한운(閑雲) 일고 수중(水中)에 백구(白鷗) 난다

① ㉠은 대구를 통해 자연 경물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한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판단 방법

'산두에 한운 일고 / 수중에 백구 난다'는 전형적인 대구법의 예시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산, 구름, 물, 기러기라는 '자연 경물의 모습'이기도 하네요. 이를 통해 충분히 한적한 분위기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두(山頭)에 한운(閑雲) 일고 수중(水中)에 백구(白鷗) 난다

무심코 다정한 것 이 두 것이로다

① 일생에 시름을 잊고 너를 좇아 놀리라

② ㉡은 자연 경물을 '너'로 지칭하여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들과 동화하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판단 방법

이런 선지를 파악할 때는 우선 '너'가 누구를 가리키는 대명사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너'는 '한운'과 '백구'라는 '이 두 것'입니다. 둘 모두 '자연 경물'이 맞고, 둘을 의인화하여 같이 노는 관계를 맺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자연을 예찬하는 고전시가에서는 '자연과 동화하려는 의지'도 거의 항상 맞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전시가의 클리셰 중 하나인, 물아일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 바람에 떨어진 갈대꽃 갯 하늘에 눈이 되어
석양에 높이 날아 어지러이 뿌리는데
갈잎에 닳 내리고 그물로
잔잔한 강물 속 자린은순(紫鱗銀脣) 수없이 잡아내어
연잎에 담은 회와 향아리에 채운 술을

③ ㉢은 자연 경물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물가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판단 방법

밑줄 친 부분이 '자연 경물의 모습'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갈대꽃', '석양'은 '자연 경물의 모습'이 맞고, '갈대꽃'이 뿌려지는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묘사했으니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도 맞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곳이 '물가'인지를 파악하면 됩니다. 뒤의 내용에서 '달', '그물', '강물', '자린은순', '회'를 보면 물가가 맞겠네요. 또한, 이 지문의 경우 <보기>에서 어부의 삶에 대한 작품이라고 설명해주었으니 뒤는 자연스럽게 맞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아이야 달 들어라 만조(晩潮)에 띄워 가자

④ ㉣은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아이가 해야 할 행동을 제시함으로써 자연 경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판단 방법

해라체의 '명령형 어미'가 드러난 것은 맞습니다. 이를 통해 달을 드는 행위, 만조에 띄워 가는 행위를 '아이가 해야 할 행동으로 제시한 것도 맞죠. 그러나 '자연 경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맞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첫째로 '아이'의 인식은 드러나 있지도, 중요하지도 않고, 둘째로 ㉣의 명령은 '인식의 변화'와는 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은 일관되게 자연을 예찬하는 작품이므로 '인식의 변화를 촉구'한다고 볼 수도 없겠습니다.

㉔ 동파(東坡) 적벽유(赤壁遊)*인들 이내 흥(興)에 미치지
않는가

㉕ ㉔은 유사한 놀이를 즐겼던 과거 인물과 비교함으로써
화자의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다.

판단 방법

‘동파 적벽유’의 뜻을 알려주었고, 이것은 ‘유사한 놀이를
즐겼던 과거 인물’이 맞습니다. 그럼 이 표현이 ‘비교’가 맞
는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소식이 적벽에서 했던 뱃놀이가
지금 내 흥에 미칠 수 있겠는가?’라는 표현은, 소식이 했던
놀이보다 지금 자기가 하는 놀이가 더 흥겹고 즐겁다는 의
미입니다. 이는 분명 비교가 맞고, 자기가 얼마나 잘 놀고
있는지 자긍심을 드러내는 것도 맞습니다.

오르비 성남고 조경민

1. 2306 「소현성록」 18번 문제

상서의 셋째 부인 여씨는 둘째 부인 석씨의 행실과 마음 씀이 매사 뛰어난을 보고 마음속에 불평하여 생각하되, '이 사람이 있으면 내게 상서의 총애가 오지 않으리라.' 하여 좋은 마음이 없더라. 날이 늦어져 모임이 흩어진 후 상서의 서모(庶母) 석과가 청운당에 오니 여씨가 말하길,

“석 부인은 실로 적강선녀라. 상공의 총애가 가볍지 않으리도다.” 석과가 취해 실언함을 깨닫지 못하고 왈,

“석 부인은 비단 얼굴뿐 아니라 덕행을 겸비하여 시모이신 양 부인이 더욱 사랑하시나이다.”

이때 석씨가 석과를 청하자 석과가 벽운당에 이르러 웃고 왈, “나를 불러 무엇 하려 하느뇨? 내 석 부인이 받는 총애를 여 부인에게 자랑하였나이다.”

석씨가 내키지 않아 하며 당부하되, “후일은 그런 말을 마소서.”

하니, 석과 웃더라.

여씨의 거동이 점점 아름답지 않으나 양 부인과 상서는 내색하지 않더라. 일일은 상서가 문안 후 청운당에 가니 여씨 없고, 녹운당에 이르니 희미한 달빛 아래 여씨가 난간에 엎드려 화씨의 방을 엿듣는지라, 도로 청운당에 와 시녀로 하여금 청하니 여씨가 급히 돌아오니 상서가 정색하고 문 왈,

“부인은 깊은 밤에 어디 갔더뇨?” 여씨 답 왈,

“문안 후 소 부인의 운취각에 갔더이다.”

상서는 본래 사람을 지극한 도로 가르치는지라 책망하며 왈, “부인이 여자의 행실을 전혀 모르는지라. 무릇 여자의 행세 하나하나 몹시 어려운지라. 어찌 깊은 밤에 분주히 다니리오? 더욱이 다른 부인의 방을 엿듣음은 금수의 행동이라 전일 말한 사람이 있어도 전혀 믿지 않았더니 내 눈에 세 번 띄니 비로소 그 말이 사실임을 알지라. 부인은 다시 이 행동을 말고 과실을 고쳐 나와 함께 늙어갈 일을 생각할지어다.”

하며 기세가 엄숙하니, 여씨가 크게 부끄러워하더라.

이후 여씨 밤낮으로 생각하더니, 문득 옛날 강충이란 자가 저주로써 한 무제와 여 태자를 이간했던 일을 떠올리고, 저주의 말을 꾸며 취성전을 범하니 일이 치밀한지라 뉘 능히 알리오? 일일은 취성전에서 양 부인이 일찍 일어나 앉았으나 석씨가 마침 병이 나서 문안에 불참하며 시녀 계성에게 청소시키니, 계성이 짐짓 침상 아래를 쓸다가 갑자기 봉한 것을 얻어 내며,

“알지 못하겠도다. 누가 잃은 것인고? 필연 동료 중 잃은 것이니 임자를 찾아 주리라.”

하고 스스로 혼잣말 하거늘 부인이 수상히 여겨 가져오

라 하여 풀어 보니, 그 글에 품은 한이 흉악하여 차마 보지 못할 바이러라. 필적이 산뜻하니 완전히 석씨의 것이라 크게 괴히 여겨 다시 보니 그 언사의 흉함이 차마 바로 보지 못할지라. 양 부인이 불을 가져다가 사르고 시녀들을 당부하여 왈,

“너희들이 이 일을 누설한즉 죽을죄를 당하리라.”

좌우 시녀 듣고 송구하여 입을 봉하되, 홀로 계성은 누설치 못함을 조급해하고 양 부인은 이후 석씨와 자녀를 보나 내색하지 않더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석씨가 쫓겨난 후, 첫째 부인 화씨를 모함 하려고 여씨가 여의개옹단을 먹고 화씨로 둔갑해 나타나자, 상서는 친누나 소씨, 의남매 윤씨, 석과를 불러 모아 함께 실상을 밝히려 여씨의 심복을 찾는다.

시녀가 여씨 심복 미양을 가리켜 아뢰니, 상서가 미양을 잡아내어 엄하게 조사하더라. 미양이 혼비백산하여 사실대로 고하고 두 가지 약을 내어 드리니, 소씨 등이 다투어 보고 웃되, 상서는 홀로 눈을 들어 보지 않으니 사악한 빛을 보지 않으려 함이라. 석과가 그중 회면단을 물에 풀어 두 화씨에게 나누어 주니 진짜 화씨 노기 가득하여 먹고 왈,

“약을 먹더라도 부모님 남긴 몸이 달리 되랴? 내 굳이 내 얼굴이 되고자 하니, 이 무슨 괴이한 생각으로 패악을 떨려 하느뇨?” 상서 왈,

“어지럽게 굴지 말라.”

진짜 화씨는 회면단을 마시되 용모 변치 않더라. 상서가 또 여씨에게 권하니, 여씨 먹지 않거늘 윤씨 웃고 왈,

“아니 먹는 죄 의심되도다.”

소씨 나아가 우김질로 들이붓더라. 여씨가 마지못하여 먹으니 화씨 변하여 여씨 되는지라. 좌우 사람들이 박장대소하더라. 상서 바야흐로 단정히 고쳐 앉으며 왈,

“군자 있는 곳에는 요사스러운 일이 없거늘 이 아우가 어질지 못하여 집안에 이런 변이 있으니 대장부 되어 아녀자를 거느리지 못하여 이런 행동거지 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으리오. 석씨를 모함함도 여씨의 일이니 누님은 따져 물으소서.”

석과가 먼저 나서며 미양을 붙들고 물으니 미양이 당초부터 여씨가 계교를 꾸뻤던 일들을 낱낱이 말하더라. 소씨, 윤씨 두 사람이 웃으며 왈,

“이제 보건대, 당초 우리 의심이 그르지 않았도다.”

석과가 몹시 좋아해 뛰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여씨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움직이지 못하고, 화씨는 꾸짖기를 마지않더라. 날이 새어 취성전에 들어가 어젯밤

일을 일일이 아뢰더라. 양 부인이 놀라고 여씨를 불러 마루 아래에 꿇리고 벌주니 가장 엄숙하여 언어 명백하며 들음에 모골이 송연하더라. 이에 여씨를 내치고 계성과 미양 등을 엄히 다스리고 집안을 평정하더라.

- 작자 미상, 「소현성록」

1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 ② 독백을 반복하여 내적 갈등의 해결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④ 한 인물과 다른 인물들 간의 다면적 갈등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두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병렬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오르비 성남고 조경민

1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 ② 독백을 반복하여 내적 갈등의 해결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④ 한 인물과 다른 인물들 간의 다면적 갈등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두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병렬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선지 분석

①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 절대 고르면 안되는 선지

판단 방법

1. '배경'과 '인물의 성격'은 연결되기 어려움.

배경은 인물 외적 요소이고, 이러한 인물 외적 요소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기는 어렵습니다.

2. '인물의 성격 변화' -> OUT

문학 기출에서 '인물의 성격 변화'가 맞게 나타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인물의 캐릭터, 성질이 바뀐다는 얘기인데, 짧게 발췌된 수능 문학 지문에서 인물의 성격 변화가 나타나기는 어렵죠. 만약 「옹고집전」 같은 지문에서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옹고집의 초반 모습과 개과천선한 옹고집의 후반 모습을 신는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② 독백을 반복하여 내적 갈등의 해결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판단 방법

- Ⓐ '독백'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 '독백'을 찾았다면, 그 '독백'이 '내적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인지를 확인합니다.

'독백'은 혼자 중얼거리듯이 서술하는 것으로, '듣는 이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지문에서 나타난 발화는 전부 듣는 이가 존재하는 '대화'의 일부이므로 Ⓐ에서 걸러집니다.

③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판단 방법

우선,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과거를 나타내는 장면과, 현재를 나타내는 장면이 번갈아 나타나면 맞는 겁니다. 그런데 고전소설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는 구성 혹은 역순행적 구성이 나타나기가 매우 어려워요. 보통 시간 순서대로 서술되곤 하죠. 이 지문에서도 과거와 현재의 교차를 찾을 수 없습니다.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개' 같은 표현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사건이 여러 시점 혹은 여러 측면에서 서술되고 있으면 맞는 표현이겠죠. 그런데 사실 얼마나 입체적이어야 하는지의 기준이 애매하고, 이 부분을 수능에서는 정답의 포인트로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확실한 근거가 무조건 있을 거예요.

관련 기출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42번 1번 선지

① 장면의 빈번한 교차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X)

2018학년도 수능 43번 2번 선지

② 빈번하게 장면을 교차하여 상황의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X)

-> 장면의 교차는 나타날 수 있어도, 장면의 '빈번한' 교차는 옳은 선지가 되기 어렵습니다. 소설에서 장면을 계속 바꿔서 서술하는 경우도 드물뿐더러, 만약 장면의 교차를 낸다고 해도 얼마나 많이 교차해야 '빈번한 교차'인지가 애매하기 때문이죠.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B 34번 5번 선지

⑤ 현재와 과거의 사실을 교차하여 향후 전개될 사건의 단서를 제공한다. (X)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A 39번 2번 선지

②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여 장면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X)

④ 한 인물과 다른 인물들 간의 다면적 갈등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판단 방법

‘한 인물’이 ‘다른 인물들’과 여러 방면에서 갈등을 빚고 있어야 합니다. 갈등을 빚는 주체를 먼저 파악하고, 그 인물이 둘 이상의 인물과 갈등을 빚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여씨가 석씨를 두고 ‘이 사람이 있으면 내게 상서의 충애가 오지 않으리라’라고 생각합니다. 여씨가 석씨를 질투하며 갈등을 빚고 있죠.

다음에는 여씨가 화씨를 모함합니다. 여씨와 화씨 사이의 갈등이 나타나는 장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한 인물이 둘 이상의 인물과 갈등을 빚고 있음을 확인했으니 정답 선지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⑤ 두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병렬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판단 방법

‘두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으니, 같은 시간에 다른 두 공간의 모습이 서술되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문에서는 그러한 서술을 확인할 수 없기에 틀린 선지입니다.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병렬적으로 배치’한다는 표현은,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나란히 배치’한다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는 할리우드 영화에서처럼,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교차하여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어벤져스에서 헐크가 땅에서 싸우는 씬을 보여주다가, 같은 시간에 아이언맨이 하늘에서 싸우는 씬을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죠. 당연히 소설에서는(특히 고전소설에서는) 이런 식의 서술이 잘 나타나지 않고, 정말 많이 나온 선지임에도 옳은 선지로 출제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가)

강호에 봄이 드니 이 몸이 일이 많다
나는 그물 낚고 아이는 밭을 가니
뒷 피에 엄기는 약을 언제 캐려 하나니

〈제1수〉

샷갓에 도롱이 입고 세우(細雨) 중에 호미 메고
산전을 흘매다가 녹음에 누웠으니
목동이 우양을 몰아다가 잠든 나를 깨와다

〈제2수〉

대추 불 붉은 골에 밤은 어이 떨어지며
벼 벤 그루에 계는 어이 내리르고
술 익자 체 장수 돌아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제3수〉

피에는 새 다 긁고 들에는 갈 이 없다
외로운 배에 샷갓 쓴 저 늙은이
납대에 맛이 깊도다 눈 깊은 줄 아는가

〈제4수〉

- 황희, 「사시가」-

(나)

건곤이 얼어붙어 삭풍이 몹시 부니
하루 켜다 한들 열흘 추위 어찌할꼬
은침을 빼내어 오색실 꿰어 놓고
입의 터진 옷을 입고자 하전마는
천문구중에 갈 길이 아득하니
아녀자 깊은 정을 입이 언제 살피실꼬
음력 선달 거의로다 새봄이면 늦으리라
동짓날 자정이 지난밤에 돌아오니
만호천문(萬戶千門)이 차례로 연다 하되
자물쇠를 굳게 잠가 동방(洞房)을 단았으니
눈 위에 서리는 얼마나 녹았으며
뜰 가의 매화는 몇 송이 피었는고
간장이 다 썩어 넘조차 그쳤으니
천 줄기 원루(怨淚)는 피 되어 솟아나고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빛조차 어두워라
황금이 많으면 매부(買賦)나 하련마는
백일(白日)이 무정하니 뒤집힌 동이에 비칠쏘냐
평생에 쌓은 죄는 다 나의 탓이로되
언어에 공교 없고 눈치 몰라 다닌 일을
풀어서 헤여 보고 다시금 생각거든

조물주의 처분을 누구에게 물으리오
사창 매화 달에 가는 한숨 다시 짓고
은쟁(銀箏)을 꺼내어 원곡(怨曲)을 슬피 타니
주현(朱絃) 끊어져 다시 잇기 어려워라
차라리 죽어서 자규의 닢이 되어
밤마다 이화에 피눈물 울어 내어
오경에 잔월(殘月)을 섞어 임의 잠을 깨우리라
- 조우인, 「자도사」-

(다)

그 집은 그 집 아이들에게 작은 우주였다. 그곳에는 많은 비밀이 있었다. 자연 속에는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비밀이 감춰져 있었다. 그는 그 집에서 크면서 자연 속에 감춰진 비밀들을 깨달아 갔다.

석양의 북새, 혹은 낮게 깔리는 굴뚝 연기를 보고 그는 비설 거지를 했다. 그런 다음 날은 틀림없이 비가 올 것이므로 비가 온 날 저녁에는 또 지렁이가 밤새 운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푹또르 푹또르 하는 지렁이 울음소리, 냄새와 소리와 맛과 색깔과 형태 등이 그 집에서는 선명했다. 모든 것들이 말이다. 왜냐하면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과 아침과 낮과 저녁과 밤이 그 집에서는 뚜렷했으므로, 자연이 그러한 것처럼 사람들의 삶이 명료했다.

이제 그 집을 떠난 그에게는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 아침과 저녁이 불분명하고 사계절이 불분명하고 오감이 불분명하다. 병원에서 태어나 수십 군데 이사를 다니고 나서 겨우 장만한 아파트 그 사각진 콘크리트 벽 속에 살고 있는 그의 아이는 여름에 긴팔 옷을 입고 겨울에 반팔 옷을 입는다.

돈은 은행에서 나고 먹을 것은 슈퍼에서 나는 것으로 아는 아이는, 수박이 어느 계절의 과일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아이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지 못한다. 아침 저녁의 냄새와 소리와 맛과 형태와 색깔이 어떻게 다른지 알지 못한다.

어머니의 부음을 듣고 그는 그가 나고 성장한 그 노란 집으로 갔다. 팔 남매를 낳고 기르느라 조그마해질 대로 조그마해진 어머니는 바로 자신의 아이들을 낳았던 그 자리에 자신의 몸을 부려 놓고 있었다.

그 집, 노란 그 집에 탄생과 죽음이 있었다. 그 집 안주인의 죽음 이후 그 집은 적막해졌다. 아무도 그 집에 들어와 살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아이를 그 집에서 낳지 않을 것이며 그러므로 죽음 또한 그 집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집의 역사는 그렇게 끝이 난 것이다.

우리들의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조왕신과 성주신이

살지 않는 우리들의 집은 이제 적막하다. 더 이상의 탄생과 죽음이 없는 우리들의 집은 쓸쓸하다.

우리는 오늘 밤도 쓸쓸한 집으로 돌아들 간다.

- 공선옥, 「그 시절 우리들의 집」 -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조의 변화를 통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 ③ 대상과의 문답을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초월적 공간을 설정하여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23. (가)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1수>의 초장, 중장은 풍경 묘사이고, 종장은 이에 대한 감상의 표현이다.
- ② <제2수>의 초장, 중장은 인물의 행위가 순차적으로 나열된 것이다.
- ③ <제2수>의 초장과 중장에 있는 인물의 행위는 <제3수>의 초장에서 그 결과로 나타난다.
- ④ <제3수>의 초장의 장면은 중장과 인과적 관계로 연결된다.
- ⑤ <제4수>의 초장의 동적인 분위기는 중장의 정적인 분위기로 전환된다.

25. (가)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녹음'은 평온한 분위기의, (나)의 '동방'은 암울한 분위기의 장소이다.
- ② (가)의 '언제'는 미래의 어느 시기를, (나)의 '언제'는 과거의 어느 시기를 가리킨다.
- ③ (가)의 '새'와 (나)의 '차규'는 모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물이다.
- ④ (가)의 '잠든 나'의 '잠'과 (나)의 '입의 잠'은 모두 꿈을 통해서라도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매개이다.
- ⑤ (가)의 '돌아가니'와 (나)의 '돌아오니'는 모두 화자가 새로운 상황에 기대감을 갖는 계기이다.

오르비 성남고 조경민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조의 변화를 통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 ③ 대상과의 문답을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초월적 공간을 설정하여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발문 해석 & 정답 선지 해설

무려 세 지문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입니다. 심지어 (가), (나)는 고전시가이고, (다)는 수필이므로 장르의 차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이고 뻔한 선지가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수한 서술, 특수한 표현을 가리키는 선지일수록 세 지문 모두에 적용되는 정답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⑤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가 정답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문학 작품에 웬만하면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심지어 선지 뒷부분의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는 판단할 필요도 없는 내용입니다. 지문 전체로 보면 당연히 무언가 내용이 전개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⑤를 판단함에 있어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는지만 찾으면 됩니다.

(가)의 첫 줄에는 '봄', (나)의 첫 줄에는 '삭풍(겨울 바람)', (다)의 두 번째 문단 첫 줄에 '석양'이 존재하니, 각 작품의 초반부만 보고도 맞는 선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혹여 '삭풍'의 뜻을 몰랐더라도 (나)에는 '음력 설달', '동짓날' 등의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많이 나오네요.

개념 보충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은 '계절을 나타내는 표현'과 '하루의 한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문학 개념어 파트 ⑦, ⑧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꼭 숙지해주세요!

참고로, '내 가슴이 얼어붙었다', '그의 눈에는 서리가 낀 듯했다' 같은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이므로, 선지가 물어보는 것이 작품의 실제 시간적 배경을 묻는 것이라면 정답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 ① 어조의 변화를 통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판단 방법

어조가 변했는지를 일차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셋 모두에서 어조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가)와 (나)는 '고전시가'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정형적인 고전시가에서는 어조의 갑작스러운 변화 같은 변주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또, 시에서 긴장감을 조성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죠. 따라서 운문 공통점 문제에서 '긴장감 조성' 같은 선지는 가급적 거르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②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판단 방법

이 선지는 '자연과 인간의 대비'라는 부분과, '세태를 비판'이라는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런 선지에서는 뒤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편합니다. '세태 비판'은 지문의 주제를 묻는 것이기에 작품의 분위기만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반면, '자연과 인간의 대비'는 특정한 표현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기에 지문으로 돌아가서 그게 실제로 있었나 찾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문을 먼저 대강이라도 읽었다면, 작품에 '비판'의 메시지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장면이 있다면 작품의 분위기가 다르니까요. (가)는 그냥 자연에서 재밌게 노는 내용입니다. '세태 비판'과는 거리가 멀죠. 이미 (가)에서 걸러졌으니 지우면 되는 선지입니다. 나머지 해설은 이하의 표로 대체합니다.

	자연과 인간의 대비	세태를 비판
(가)	X (오히려 자연과 인간이 동화되는 모습)	X
(나)	X	X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을 한탄할 뿐임. '세태'는 사회적인 상태를 가리킴)
(다)	△ (자연에 살던 인간의 모습과 자연이 없는 집에 사는 인간의 모습을 대비하는 것이라 다소 애매함)	O

위의 표에서 X가 하나만 있어도 정답이 될 수 없는 선지입니다. 지울 수 있는 근거가 너무 많네요.

③ 대상과의 문답을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판단 방법

'대상과의 문답'이 드러나 있으면 됩니다. '문답'이 맞으려면, '묻는 내용'과 '대답하는 내용' 모두가 나타나야 합니다. (가)와 (나)에는 물음의 형식은 존재하지만, 어떤 대상에게 묻는 것도 아니고, 대답하는 내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맞다고 판단할 수 없네요. '주제 의식 부각'은 거의 모든 상황에 맞게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이므로, 판단할 필요가 없는 선지입니다.

④ 초월적 공간을 설정하여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판단 방법

'초월적'이라는 단어가 맞는 케이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것을 말합니다. 가령 고전소설에서 주인공이 꿈을 꾴서 천상의 궁궐에 다 다른다면, '초월적 공간'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인물이 도술을 부린다면 그 인물을 '초월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둘째로, 일반적인 인식이나 규범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초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 삶의 태도에서 벗어났다면 그 인물이 속세를 초월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지문에서 (가)는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졌는데, 이런 삶의 터전을 '초월적 공간'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나)는 임이 계신 곳을 저 멀리 하늘에 있는 '천문구중'으로 설정했고, 이는 '초월적 공간'이 맞아요. (다) 역시 '초월적'을 맞게 판단할 구석이 없네요.

23. (가)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제1수>의 초장, 중장은 풍경 묘사이고, 종장은 이에 대한 감상의 표현이다.

② <제2수>의 초장, 중장은 인물의 행위가 순차적으로 나열된 것이다.

③ <제2수>의 초장과 중장에 있는 인물의 행위는 <제3수>의 초장에서 그 결과로 나타난다.

④ <제3수>의 초장의 장면은 중장과 인과적 관계로 연결된다.

⑤ <제4수>의 초장의 동적인 분위기는 중장의 정적인 분위기로 전환된다.

① <제1수>의 초장, 중장은 풍경 묘사이고, 종장은 이에 대한 감상의 표현이다.

판단 방법

선지에서 묻는 순서대로 한 줄 한 줄 판단해보면 됩니다. 초장, 중장에는 봄이 오는 자연과 그 안에서의 생활상을 묘사하고 있으니, 풍경 묘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BS 해설에서는 풍경 묘사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오류입니다. 다음의 기출 사례를 떠올리면 ‘인간의 생활상’을 묘사하는 것도 풍경 묘사로 볼 수 있습니다.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B 33번 <보기> 내용

작품에 따라서는 일상의 풍경을 도입하여 계절의 변화에 따른 세상살이의 모습을 조명하거나, 어김없이 순환하는 자연의 이치와 무상한 인간사를 대비하기도 한다.

같은 문제의 옳은 선지

④ 봄에 소를 먹여 논밭을 가는 것과 가을에 울벼로 빚은 술을 찾는 것은 일상의 풍경을 그려 낸 사례이겠군.

위 기출은 지금 우리가 보는 23번 문제와 비슷한 작품을 다루는 거의 같은 형식의 문제입니다. 꼭 자연의 풍경을 묘사해야만 풍경 묘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그려내기만 해도 풍경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장, 중장은 풍경 묘사’라는 내용은 맞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장은 이러한 풍경에 대한 감상이 아니라, 단순히 ‘약을 언제 캐려 하느냐?’라는 의문의 표현이므로 틀렸습니다.

② <제2수>의 초장, 중장은 인물의 행위가 순차적으로 나열된 것이다.

판단 방법

삿갓에 도롱이 입고 ⇒ 세우 중에 호미 메고 ⇒ 산전을 흠매다가 ⇒ 녹음에 누웠으니

인물의 행위를 순차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나열되었다는 것은, 인물이 한 행위들이 시간 순서에 따라 나열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③ <제2수>의 초장과 중장에 있는 인물의 행위는 <제3수>의 초장에서 그 결과로 나타난다.

판단 방법

<제2수>를 보면, 초장과 중장에 행위의 주체가 되는 인물은 '나'입니다. 중장에서 '나'가 녹음에 누웠다가, 중장에서 목동이 '나'를 깨우죠. 그런데 <제3수>의 초장에서 밤이 떨어지는 것이 '나'가 잠에 든 결과인가요? 절대 아니죠.

그리고 사실 제목이 '사시가'이지 않습니까? <제1수>~<제4수>는 각각 봄부터 겨울까지의 풍경을 그려낸 것이고, 각 수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2수>의 행위가 <제3수>의 원인이 된다는 선지는 정답이 되기 어렵습니다.

④ <제3수>의 초장의 장면은 중장과 인과적 관계로 연결된다.

판단 방법

'인과적 관계'라고 한다면, 둘 중 하나는 원인이고, 하나는 그것에 대한 결과가 되어야 합니다.

밤이 떨어지는 것이 계가 내리는 것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는 문법적 요소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초장의 끝에서 '계는 어이 떨어지며'라고 서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며'는 둘 이상의 사건을 대등한 자격으로 나열할 때 사용되는 연결 어미로, 초장의 사건과 중장의 사건을 병렬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⑤ <제4수>의 초장의 동적인 분위기는 중장의 정적인 분위기로 전환된다.

판단 방법

초장을 보면, 산에는 새가 없고, 들에는 사람이 없답니다. 이건 아주 전형적인 '정적인 분위기'입니다. 뭔가 조용하고, 움직임이 없고, 고요하면 '정적인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장에도 '외로운 배'에 한 노인이 낚시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니, 처음부터 끝까지 정적인 분위기네요.

25. (가)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의 '녹음'은 평온한 분위기의, (나)의 '동방'은 암울한 분위기의 장소이다.

② (가)의 '언제'는 미래의 어느 시기를, (나)의 '언제'는 과거의 어느 시기를 가리킨다.

③ (가)의 '새'와 (나)의 '자규'는 모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물이다.

④ (가)의 '잠든 나'의 '잠'과 (나)의 '임의 잠'은 모두 꿈을 통해서라도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매개이다.

⑤ (가)의 '돌아가니'와 (나)의 '돌아오니'는 모두 화자가 새로운 상황에 기대감을 갖는 계기이다.

① (가)의 '녹음'은 평온한 분위기의, (나)의 '동방'은 암울한 분위기의 장소이다.

판단 방법

이러한 '분위기'는 작품의 주제를 파악하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령 (가)는 자연 안에서의 즐거움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녹음'은 화자가 잠에 드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자연'의 장소이죠. 따라서 '평온한 분위기'라는 긍정적인 해석을 쉽게 허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나)는 24번, 27번 문제의 <보기>에서 설명해주었듯, '죽음에 견줄 만큼의 극단적인 슬픔을 드러낸' 작품이면서, '옥에 갇혔을 때 지은 가사'입니다. 따라서 닫혀 있는 '동방' 역시 부정적인 장소로 판단할 수 있고, '암울한 분위기의 장소'라는 해석을 받아들이기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② (가)의 '언제'는 미래의 어느 시기를, (나)의 '언제'는 과거의 어느 시기를 가리킨다.

판단 방법

해당 단어가 포함된 문장만 확인하면 됩니다.

(가)의 '약을 언제 캐려 하나니'는 '약을 언제 캐려 하나냐?'라는 뜻이고, 여기서 '언제'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약을 캐는 미래의 시점을 가리키므로 맞습니다.

한편 (나)에서 '임이 언제 살피실꼬'라는 표현은 임이 아직 살피지 않았음을 함축합니다. 이 역시 (가)와 마찬가지로 '언제'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임이 살피는 미래의 시점을 가리키므로 맞습니다.

③ (가)의 '새'와 (나)의 '자규'는 모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물이다.

개념 설명

문학 용어로서의 '감정 이입'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감정 이입'이라는 표현과 방향이 반대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감정 이입'이라는 표현은 드라마를 보고 인물한테 공감을 느끼는 식으로 인물의 감정을 독자가 느끼는 것이지만, 문학 용어로서의 '감정 이입'은 인물의 감정을 어떤 대상에 집어 넣어서 동일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저 새도 나와 같이 우는구나'라면, 슬픔을 느끼는 화자가 '새' 또한 자신과 같은 감정을 느껴 울고 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때 새가 실제로 슬픔을 느껴 울 수는 없으니 이는 화자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며, 이를 감정 이입이라고 합니다.

판단 방법

(가)의 '새'는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 대상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새가 다 그쳤다(새가 없다)'라고 말했을 뿐이예요. 한편 (나)의 '자규(두견새)'는 화자가 죽어서 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화자는 자규가 녀을 가지고 피눈물을 울어내는 존재라 생각하고 있으니 감정 이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가)의 '잠든 나'의 '잠'과 (나)의 '임의 잠'은 모두 꿈을 통해서라도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매개이다.

판단 방법

우선, (가)의 '나'는 딱히 소망이랄게 없습니다. 그리고 잠에 든 것도 그냥 자연에서 편하니까 녹음에서 잠든 것일 뿐, 뭔가 꿈을 꾸었다는 얘기도 없죠. (나)에 나타난 '임의 잠' 역시, 꿈과 관련된 것이 아니예요. 화자는 차라리 죽어서 자규가 되어 임의 잠을 깨우는 존재가 되고 싶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의 '임의 잠'이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매개'라고 볼 수는 없죠. 관대하게 봐서, '자규가 되어 임의 잠을 깨우고 싶다는 마음'은 소망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매개'는 둘 사이를 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내가 편지를 통해 친구에게 마음을 전한다면, 편지가 마음을 전하는 매개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잠'이 어떤 두 대상물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기에 옳다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⑤ (가)의 '돌아가니'와 (나)의 '돌아오니'는 모두 화자가 새로운 상황에 기대감을 갖는 계기이다.

판단 방법

(가)의 '돌아가니'는 화자가 술을 먹게 되는 상황을 야기하므로 새로운 상황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돌아오니'는 이후에 '자물쇠를 굳게 잠가' 간장이 다 썩는 듯한 상황으로 이어지므로, 전혀 기대감이라는 반응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2. 2306 「향아」, 「전문가」 32번 문제

3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과거를 회상하며 현실을 관망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② (나)는 상징성을 띤 사건의 전개를 통해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

③ (가)와 (나)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상상 세계의 경이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④ (가)와 (나)는 모두 동일한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⑤ (가)는 위로하는 어조로, (나)는 충고하는 어조로 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① (가)는 과거를 회상하며 현실을 관망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판단 방법

1. **과거를 회상** :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있는지 찾으시면 됩니다. 첫 연에서는 ‘옛날로 가자’라고 하고, 그 다음 연에서는 그 옛날의 풍경을 묘사합니다. 이는 충분히 과거 회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 **현실을 관망** : ‘관망’한다는 것은, 한 발짝 떨어져서 간섭하지 않고 사건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여기서는 ‘관조’와 비슷한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문학 선지에서 ‘현실을 관망’한다는 선지가 맞으려면, **화자가 현실과 떨어져 있어야 하고, 현실에 대해 별 감정을 나타내지 않아야 합니다.** 현실의 상황에 이입해서 분노하거나, 슬퍼한다면 ‘관망’이 아니겠죠. 그런데, 34번 문제의 <보기>를 봅시다. (가)가 부정적 현실을 비판하고,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한다네요.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소망하며 자기 감정과 의견을 많이 투입한다면 절대!! 관망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② (나)는 상징성을 띤 사건의 전개를 통해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

판단 방법

주제는 생각할 것도 없이 34번 <보기>에서 말했듯 ‘환영(幻影)을 통해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대중을 획일적으로 길들이는 권력의 기만적 통치술에 대한 비판 의식’입니다.

이렇게 <보기>를 통해 알게 된 주제를 바탕으로 (나)의 ‘그’와 ‘우리 담장’ 얘기를 읽어보면, ‘그’는 ‘권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아이들은 ‘대중’을 상징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네요. <보기>⇒지문⇒문제 순서로 읽으면 굉장히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③ (가)와 (나)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상상 세계의 경이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판단 방법

이 선지를 판단할 때는 **뒤부터** 판단합니다. ‘음성 상징어를 활용’했는지를 확인하려면 지문으로 돌아가서 음성 상징어를 찾아야 하지만, ‘상상 세계의 경이로움’은 주제나 분위기만 파악해도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나)는 **권력에 대한 비판 의식을 나타내는 작품**입니다. ‘상상 세계의 경이로움’은 바로 틀렸다고 판단할 수 있죠. ‘경이롭다’는 사전적으로는 놀랍고 신기하다는 뜻이지만, 긍정적인 어조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나)에서 묘사되는 세계는 어둡고 부정적인 것이기에, 맞게 판단할 수 없겠어요. (가)에는 ‘과거’, ‘풍속’의 세계가 경이롭게 그려지고 있는데, 작품에서 나타난 과거의 모습을 ‘상상 세계’라고 하기도 어려워보입니다.

음성 상징어는 소리를 흉내내는 ‘의성어’와 모양 혹은 움직임 흉내내는 ‘의태어’를 합친 말입니다. (가)는 과거의 세계를 묘사하며 ‘수수력거리는’이라는 의성어를 사용하고, 부정적 현실을 묘사하며 ‘미끈땀한’이라는 의태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는 딱히 음성 상징어가 나타나 있지 않네요.

④ (가)와 (나)는 모두 동일한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판단 방법

(가)에는 ‘돌아가자’라는 ‘동일한 시구’가 반복됩니다. 또, ‘풍속으로 돌아가자’, ‘마음밭으로 돌아가자’처럼 변주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적 분위기도 고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적 분위기가 고조되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느낌인데, 시에서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는 것, 점층법을 사용하는 것, 점점 이미지를 확장시키는 것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적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느낌’을 묻는 포인트는 수능에서 정답/오답을 가르치는 포인트로 나오지는 않아요. 우리는 ‘동일한 시구의 반복과 변주’ 같은 객관적인 요소나 잘 파악하면 됩니다. 그러나 (나)에는 동일한 시구의 반복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답이네요.

⑤ (가)는 위로하는 어조로, (나)는 충고하는 어조로 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판단 방법

이것 역시 ①, ②, ③처럼 <보기>에서 제시된 작품의 주제를 확인하면 금방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는 현실을 비판하고 생명력의 회복을 소망하는 작품입니다. ‘위로’ 따위랑은 어울리지 않죠. (나)는 그냥 현실 권력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충고’라고 할 수도 없어요. ‘어조’를 느낌으로 파악하기 전에, 문제에서 준 객관적인 정보를 활용해서 빠르게 푸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시적 청자’는 시의 화자가 말을 건네는 것으로 설정된 대상을 말합니다. 작품 안에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작품 안에 없는 경우에는 대개 독자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23번]

(가)

구겨진 하늘은 묵은 애기책을 편 듯
돌담 울이 고성같이 둘러싼 산기슭
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 오면
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고향을 그린 묵화 한 폭 종이 쳐.

떡엄 떡엄 보이는 그림 조각은
앞밭에 보리밭에 말매나물 캐러 간
가시내는 가시내와 종달새 소리에 반해

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도 부끄러워
술래잔 두 뺨 위에 모매꽃이 피었고.

그넷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앞내강에 씨레나무 밀려 나리면
젊은이는 젊은이와 뗏목을 타고
돈 벌러 항구로 흘러간 몇 달에
서릿발 잎 저도 못 오면 바람이 분다.

피로 가꾼 이삭이 참새로 날아가고
곰처럼 어린 놈이 북극을 꿈꾸는데
늙은이는 늙은이와 싸우는 입김도

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겨울 밤은
동리(洞里)의 밀고자인 강물조차 얼붙는다.

- 이육사, 『초가』 -

(나)

오늘, **폭쟁**을 열어,
장거릴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앓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태고로부터 푸르려 온 산이 아니냐.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壽)하는 데다가
보옥을 갖고도 자랑 앓는 겸허한 산.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아라히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미역취 한 이파리 상긋한 산 내음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같은 산 정기(精氣)를 그리며 산다.

- 김관식, 『거산호 2』 -

(다)

온갖 꽃들이 요란스럽게 일제히 터트려져 광채가 찬란하다. 이때에 바람이 살짝 불어오면 향기가 코를 스친다. 때마침 꼴베는 자가 낮을 가지고 와서 손 가는 대로 베어 내는데, 아쉬워 돌아보거나 거리끼는 마음도 없다. 나는 이에 한숨을 쉬며 탄식하여 말하였다.

“땅이 낳고 하늘이 기르느바, 만물이 무성히 자라며 모두가 광대한 은택을 입는구나. 이에 따스한 바람이 불어 갖가지 형상을 아로새기고 단비를 내려 온 둘레를 물들이니, 천기(天機)를 함께 타고나 형체를 부여받음에 각기 그 자질에 따라 고운 자태를 드러낸다. 모란의 진귀하고 귀중함을 해당화의 곱고 아름다움에 견주어 보면, 비록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으나, 어찌 **공교함과 졸렬함**에 다른 헤아림이 있었겠는가?

(중략)

그런데도 **귀함**이 저와 같고 **천함**이 이와 같아, 어떤 것은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서** 눈앞의 봄바람을 지키고, 어떤 것은 짧은 낮을 든 어리석은 종의 손아귀에서 가을 서리처럼 변한다. 이 어찌 된 일인가? 뜨락은 사람 가까이 있고 교외의 땅은 멀리 막혀 있어 가까운 것은 친하기 쉽고 멀리 있는 것은 저어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요황과 위자***는 성씨가 존엄한데 범상한 화초는 이름이 없으며, 성씨가 존엄한 것은 곱게 빛나는데 이름 없는 것들은 먼 데서 이주해 온 백성 같은 존재이기 때문인가? 그도 아니면 뿌리가 깊은 것은 종족이 번성한데 **뻥뻥**이 늘어선 것들은 가늘고 작으며, 높고 큰 것은 높은 자리에 있고 가늘고 작은 것들은 들판에 있기 때문인가?

아! 낳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으나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 있다.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기에 그 **造化(造化)가 균일**하지만, 인간은 널리 베풀지 못하므로 **소원함**도 있고 **천함**도 있는 것이다. 하늘이 이미 낳아 주었는데 또 어찌 사람이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지 못하게 한다고 원망하겠는가? 나에게는 비록 감정이 있지만 풀에는 감정이 없으니, 그것이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것과 나비로 하여금 다투어** 찾도록 하는 것을 어찌 달리 보겠는가?”

- 이육, 『담초(談艸)』 -

* 요황과 위자: 모란의 진귀한 품종을 일컫는 말.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문학적 표현에는 표현 대상을 그와 연관된 다른 관념이나 사물로 대신하여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는 사물의 속성으로 실체를 대신하거나 대상의 한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법들은 서로 혼재되기도 하면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미지와 분위기를 환기한다.

- ① (가)에서 저녁이 오는 시간을 그와 연관된 사물인 ‘호롱불’이 켜진다는 것으로 나타냄으로써, 산골 마을의 저녁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② (가)에서 고향에 머무르지 못하고 객지로 떠나는 현실을 ‘뗏목’을 타고 흘러가는 것과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삶의 불안정함을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③ (나)에서 세속적인 삶의 공간 전체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장거리’의 속성을 활용하여 나타냄으로써,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 공간의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 ④ (다)에서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을 그러한 속성을 가진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으로 나타냄으로써,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 ⑤ (다)에서 풀의 가치를 ‘소’와 ‘나비’의 행위와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하찮게 취급되는 풀과 귀하게 여겨지는 풀의 차이를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오르비 성남고 조경민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문학적 표현에는 표현 대상을 그와 연관된 다른 관념이나 사물로 대신하여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는 사물의 속성으로 실체를 대신하거나 대상의 한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법들은 서로 혼재되기도 하면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미지와 분위기를 환기한다.

- ① (가)에서 저녁이 오는 시간을 그와 연관된 사물인 ‘호롱불’이 켜진다는 것으로 나타냄으로써, 산골 마을의 저녁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② (가)에서 고향에 머무르지 못하고 객지로 떠나는 현실을 ‘뗏목’을 타고 흘러가는 것과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삶의 불안정함을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③ (나)에서 세속적인 삶의 공간 전체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장거리’의 속성을 활용하여 나타냄으로써,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 공간의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 ④ (다)에서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을 그러한 속성을 가진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으로 나타냄으로써,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 ⑤ (다)에서 풀의 가치를 ‘소’와 ‘나비’의 행위와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하찮게 취급되는 풀과 귀하게 여겨지는 풀의 차이를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보 기> —

문학적 표현에는 표현 대상을 그와 연관된 다른 관념이나 사물로 대신(=대유법)하여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는 사물의 속성으로 실체를 대신(=환유법)하거나 대상의 한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것(=제유법)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법들은 서로 혼재되기도 하면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미지와 분위기를 환기한다.

<보기> 해설

위에 설명된 내용은 비유법의 일종인 대유법과, 대유법의 두 유형인 환유와 제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환유와 제유는 한 번도 수능 문학 선지에 등장한 적이 없는 단어이며, 평가원도 학생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기에 <보기>로 설명해 준 것입니다(환유는 2005학년도 9평 ‘비문학’ 문제 주제로 한 번 나온 적은 있습니다).

환유와 제유를 몰랐더라도 선지를 보고 답을 판단할 수 있으니, <보기>의 내용을 가볍게 받아들이고 선지를 판단해 봅시다. 그래도 이번 기회에 저 세 개념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 ① (가)에서 저녁이 오는 시간을 그와 연관된 사물인 ‘호롱불’이 켜진다는 것으로 나타냄으로써, 산골 마을의 저녁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판단 방법

‘황혼’이 올 때, 사람들이 호롱불을 켵니다. 어두워지니까 호롱불을 켜는 것이고, 따라서 ‘호롱불’은 ‘저녁’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호롱불’이 ‘저녁’의 제유가 되는 것이고, ‘저녁이 오는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시간을 눈에 보이는 ‘호롱불’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 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② (가)에서 고향에 머무르지 못하고 객지로 떠나는 현실을 ‘뗏목’을 타고 흘러가는 것과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삶의 불안정함을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판단 방법

이 선지는 사실 앞에 있었던 19번 문제의 <보기>를 보면 더 가볍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 <보 기> —

이육사는 『초가』를 발표하면서 ‘유폐된 지역에서’라고 창작 장소를 밝혔다. 이곳에서 그는 오래전 떠난 고향을 떠올려 시로 형상화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낭만적인 봄에서 비극적인 겨울로 시상을 전개하여 악화되어 가는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묘사했다.

<보기>만 보고도 ‘고향에 머무르지 못하고 객지로 떠나는 현실’이 맞음을 알 수 있습니다. 꼭 그게 아니더라도 ‘젊은 이는 젊은이와 뗏목을 타고/돈 벌러 항구로 흘러간 몇 달에/서릿발 잎 저도 못 오면 바람이 분다.’ 부분을 보면 젊은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떠나는 것을 맞다고 판단할 수 있죠. 여기서 그냥 배도 아니고 ‘뗏목’을 타고 갔다고 한 것은, 이들의 삶이 불안정하다는 의미를 담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뗏목’은 ‘삶의 불안정함’이라는 개념의 환유가 됩니다.

판단 팁

1. 이런 선지는 사실 ‘틀렸다는 근거가 없으면’ 맞는 겁니다. <보기>의 내용과 충돌하지 않고, 뭔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뭔가 해석과 관련된 선지, 조금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선지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 한은 정답이 아니니 애매하면 넘어갑시다.
2.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준다는 부분은 <보기>의 마지막 줄을 보고 맞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비유법은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사물로 비유하여 구체적 이미지를 드러냅니다.

오늘, 북창을 열어,
장거릴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태고로부터 푸르려 온 산이 아니냐.

③ (나)에서 세속적인 삶의 공간 전체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장거리’의 속성을 활용하여 나타냄으로써,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 공간의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판단 방법

우선, 세속적인 삶의 공간 전체를 나타낸 것이 ‘장거리’가 맞는지 확인해봅시다.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이미지를 머리에 그려보아야 합니다.

화자는 북창을 열고, 산을 향하여 앉습니다. ‘장거리’는 등지고요. 그리고 그 이유를 ‘사람은 변하지만, 산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4번째 행에서 밝힙니다.

따라서, 화자가 산을 향하여 앉는 이유는 산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장거리를 등지고 있는 이유는 사람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장거리는 뭔가 사람들이 모은 공간일 테고, ‘세속적인 공간’이 맞아봅니다.

‘장거리’가 ‘세속적인 삶의 공간 전체’를 나타낸 것이 맞다면, 선지 뒷부분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맨날 변한다니까, 인심이 쉽게 변하는 것도 맞겠네요.

여기서의 ‘장거리’는 ‘세속적인 삶의 공간’ 중 일부인데, 일부로 전체를 나타냈으므로 제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장거리’는 긴 거리(long distance)가 아니라 ‘시장 거리’라는 뜻입니다. 고전시가로 치면 ‘속세’, ‘인세’, ‘홍진’ 정도의 어휘예요. 알았다면 조금 더 편했을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도 **귀함**이 저와 같고 **천함**이 이와 같아, 어떤 것은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서 눈앞의 봄바람을 지키고, 어떤 것은 짧은 낮을 든 어리석은 종의 손아귀에서 가을 서리처럼 변한다.

④ (다)에서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을 그러한 속성을 가진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으로 나타냄으로써,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판단 방법

‘귀함’은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 있고, ‘천함’은 ‘종의 손아귀’에서 베어집니다. 따라서 <보기>에 비추어 봤을 때 (다)는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을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으로 환유한 것이 맞습니다. 여기가 인간과 가까운 공간인 것도 맞고요.

그러나 ‘적막한 분위기’를 맞다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적막한’은 쓸쓸하거나 외롭다는 뜻인데, 좋은 대우를 받는 삶이 ‘적막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사실 ‘분위기’로 정오 근거를 만든 것은 오랜만이긴 합니다. 그것도 수능에서, 학생들이 뜻을 잘 모르는 ‘적막한’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요.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어휘력이 약한 학생들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더라도 공부를 하다 모르는 단어or뜻이 모호한 단어가 있으면 사전에 검색을 해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하늘이 이미 낳아 주었는데 또 어찌 사람이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지 못하게 한다고 원망하겠는가? 나에게서는 비록 감정이 있지만 풀에는 감정이 없으니, 그것이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것과 나비로 하여금 다투어 찾도록 하는 것을 어찌 달리 보겠는가?”

⑤ (다)에서 풀의 가치를 ‘소’와 ‘나비’의 행위와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하찮게 취급되는 풀과 귀하게 여겨지는 풀의 차이를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판단 근거

어떤 풀은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역할을 하고, 어떤 풀은 ‘나비로 하여금 다투어 찾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풀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단순한 여물이, 하나는 관상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두 풀의 다른 가치를 소와 나비의 행위로 나타내었고, 시각적인 이미지로 차이를 알려주었으니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준 것이 맞네요.

김달채 씨는 퇴근하기 무섭게 뽀르르 집으로 달려 가던 목은 습관을 버리고 밤늦도록 하릴없이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새로운 습관을 몸에 붙였다. 지하철이나 버스 혹은 공중변소나 포장마차 안에서, 백화점에서 사지도 않을 물건을 흥정하거나 정류장에서 토크 아니면 올림픽복권을 사면서, 그리고 행인에게 담뱃불을 빌거나 더욱 과감하게는 파출소에 들어가 경찰관에게 길을 묻는 시늉을 하는 사이에 마주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상대로 달채 씨는 실수를 가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렷한 목적 의식을 드러내기도 해 가며 우산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다. 그런 다음 상대방의 눈에 과연 우산이 어떻게 비치는지, 그리하여 상대방이 우산 입자인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반응을 떠보는 작업을 일삼아 계속해 나갔다. 참으로 긴장과 전율이 넘치는 빠른 나날들이었다. 구청 호적계장의 직위에 오르기까지 여태껏 전혀 몰랐던 세계가 구청과 자기 집구석 바깥에 따로 있음을 그는 우산을 통해서 비로소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었다.

[A]

24.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심인물이 알지 못하는 사건을 제시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공간 이동에 따른 인물의 내면 변화를 회상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 ③ 동시적 사건들의 병치로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한 가지의 목적으로 수렴되는 인물의 의도적인 행위들을 나열하고 있다.
- ⑤ 상대를 달리하여 벌이는 인물의 행동을 서술하여 점진적으로 심화되는 갈등을 묘사하고 있다.

오르비 성남고 조경민

24.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심인물이 알지 못하는 사건을 제시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공간 이동에 따른 인물의 내면 변화를 회상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 ③ 동시적 사건들의 병치로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한 가지의 목적으로 수렴되는 인물의 의도적인 행위들을 나열하고 있다.
- ⑤ 상대를 달리하여 벌이는 인물의 행동을 서술하여 점진적으로 심화되는 갈등을 묘사하고 있다.

판단 방법

‘중심인물’은 ‘김달채’입니다. [A]는 그의 행동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알지 못하는 사건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 ② 공간 이동에 따른 인물의 내면 변화를 회상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판단 방법

‘공간 이동’은 드러나 있습니다. 집, 길거리, 지하철, 파출소 등등... 그러나 그의 ‘내면 변화’는 나타나있지 않고, 오히려 그는 일관된 태도로 ‘우산’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죠. ‘회상’ 역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 ③ 동시적 사건들의 병치로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판단 방법

‘동시적 사건들의 병치’는 없습니다. 이는 개념 설명 파트에서 설명했듯, 정답이 되기 어려운 선지죠. 또한 모든 사건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진행되기에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④ 한 가지의 목적으로 수렴되는 인물의 의도적인 행위들을 나열하고 있다.

판단 방법

‘한 가지 목적’은 ‘우산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것이고, 그는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의도적인 행위도 맞고, 같은 목적을 위한 여러 행위가 나오니 ‘나열’도 맞아요.

- ⑤ 상대를 달리하여 벌이는 인물의 행동을 서술하여 점진적으로 심화되는 갈등을 묘사하고 있다.

판단 방법

‘상대를 달리하여 벌이는 인물의 행동’은 나타나 있어요. 여러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산을 보여주려 합니다. 그러나 ‘갈등’도, 갈등의 점진적 심화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가)

춘일(春日)이 지지(遲遲)하여 빠꾸기가 보채거늘
 동린(東隣)에 쟁기 얻고 서사(西舍)에 호미 얻고
 집 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올벼 씨 한 말은 반 넘게 쥐 먹었고
 기장 피 조 팔은 서너 되 부쳤거늘
 한아(寒餓)한 식구 이리하여 어이 살리

(중략)

베틀 복도 쓸데없어 빈 벽에 남겨 두고
 솔 시루 버려두니 붉은 빛이 다 되었다
 세시 삭망 명절 제사는 무엇으로 해 올리며
 원근 친척 내빈왕객(來賓往客)은 어이하어 접대할꼬
 이 얼굴 지너 있어 어려운 일 하고 많다
 이 원수 궁귀(窮鬼)를 어이하어 여의려노
 술에 후량을 갖추고 이름 불러 전송하여
 길한 날 좋은 때에 사방으로 가라 하니
 웅얼웅얼 불평하며 원노(怨怒)하여 이른 말이
 어려서나 늙어서나 희로우락(喜怒哀樂)을 너와
 함께하여

죽거나 살거나 여윌 줄이 없었거늘
 어디 가 뉘 말 듣고 가라 하여 이르느뇨
 우는 듯 꾸짖는 듯 온가지로 험박커늘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리거늘
 네 혼자 유신하여 나를 아니 버리거든
 위협으로 회피하며 잔피로 여윌려나
 하늘 삼긴 이내 궁(窮)을 설마한들 어이하리
 빈천도 내 분(分)이니 서러워해 무엇하리

[A]

- 정훈, 『탄궁가』 -

(나)

서산에 돌을별 비추고 구름은 느지막이 내린다
 비 온 뒤 묵은 풀이 뉘 받이 우거졌던고
 두어라 차례 정한 일이니 매는 대로 매리라

<제1수>

면화는 세 다래 네 다래요 이른 벼의 쾌는 모가

급난가

오뉴월이 언제 가고 칠월이 반이로다
 아마도 하느님 너희 삼길 제 날 위하여 삼기셨다

[B]

<제7수>

아이는 낚시질 가고 집사람은 절이채 친다
 새 밥 익을 때에 새 술을 걸러셔라

32.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절의 변화에 조응하는 여러 자연물을 활용해 화자의 인식 전환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계절감이 드러난 소재를 대등하게 나열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특정 계절의 풍속을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묘사하고 있다.
- ④ 특정 계절을 배경으로 제시해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⑤ 계절의 순환을 중심으로 자연의 섭리를 드러내고 있다.

33. [A],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술에 후량’을 갖춘 화자는 의례를 통해 ‘궁귀’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 있다.
- ② [B]에서 화자는 시간의 경과를 의식하며 ‘세 다래 네 다래’ 열린 ‘면화’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A]에서 화자는 ‘이내 궁’과의 관계를, [B]에서 화자는 ‘너희’와의 관계를 운명적인 것으로 여기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 ④ [A]에서 화자는 ‘옳도다’라는 응답으로 ‘네 말’을 수용하는 태도를, [B]에서 화자는 ‘반이로다’라는 감탄으로 ‘쾌는 모’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A]와 [B]에서 화자는 각각 초월적인 존재인 ‘하늘’과 ‘하느님’을 예찬하는 어조를 취하고 있다.

오르비 성남고 조경민

32.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절의 변화에 조응하는 여러 자연물을 활용해 화자의 인식 전환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계절감이 드러난 소재를 대등하게 나열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특정 계절의 풍속을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묘사하고 있다.
- ④ 특정 계절을 배경으로 제시해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⑤ 계절의 순환을 중심으로 자연의 섭리를 드러내고 있다.

① 계절의 변화에 조응하는 여러 자연물을 활용해 화자의 인식 전환을 보여 주고 있다.

판단 방법

‘계절의 변화에 조응’한다는 부분이 맞으려면, ‘계절의 변화’를 보여주는 표현이 나타나야 하고, 자연물들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 같이 변화해야 합니다. ‘춘일’은 분명 ‘계절’은 맞는데, ‘계절의 변화’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춘일이 와서 화자를 보채는 뼈꾸기 정도를 제외하면 딱히 ‘조응하는 여러 자연물’도 보이지 않습니다.

‘화자의 인식 전환’은 [A]에서 나타나긴 합니다. 가난을 한탄하던 화자가 가난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요. 그러나 이게 ‘조응하는 자연물’로 인한 것은 아니죠. ‘궁귀’와의 대화를 통해 전환된 것이니까요.

따라서 선지 앞 부분도 틀렸고, 앞 부분과 뒷 부분이 아예 연결되지 않으므로 틀린 선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② 계절감이 드러난 소재를 대등하게 나열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판단 방법

‘봄날’, ‘세시 삭망’은 ‘계절’을 나타내는 것은 맞지만 ‘계절감’이 드러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뼈꾸기’ 정도가 계절감이 드러난 소재인데, 이들이 대등하게 나열되어 있지도 않으니 정답으로 고를 수 없습니다.

③ 특정 계절의 풍속을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묘사하고 있다.

판단 방법

‘세시 삭망 명절 제사’를 ‘특정 계절의 풍속’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제사가 지금 화자에 의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화자가 보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시선 이동’, ‘묘사’가 틀렸습니다.

④ 특정 계절을 배경으로 제시해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판단 방법

‘춘일’이라는 특정 계절이 배경입니다. ‘춘일’이 왔는데도 농사를 제때 짓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는 화자의 처지가 지문 첫 부분에서 제시됩니다.

판단 팁

사실 특정 계절을 배경으로 제시하는 것,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는 것은 여러 작품에서 나오는 아주 흔한 표현법입니다. 수능에서의 문학 개념어 문제는 뭔가 뻔한 선지, 뭔가 익숙한 선지, 뭔가 단순한 선지일수록 정답이 되기 쉬우니, 이런 일반적인 선지들 먼저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⑤ 계절의 순환을 중심으로 자연의 섭리를 드러내고 있다.

판단 방법

작품에서의 ‘계절’은 봄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절의 순환’이 맞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33. [A],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에서 '술에 후량'을 갖춘 화자는 의례를 통해 '궁귀'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 있다.

② [B]에서 화자는 시간의 경과를 의식하며 '세 다래 네 다래' 열린 '면화'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③ [A]에서 화자는 '이내 궁'과의 관계를, [B]에서 화자는 '너희'와의 관계를 운명적인 것으로 여기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④ [A]에서 화자는 '옳도다'라는 응답으로 '네 말'을 수용하는 태도를, [B]에서 화자는 '반이로다'라는 감탄으로 '패는 모'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A]와 [B]에서 화자는 각각 초월적인 존재인 '하늘'과 '하느님'을 예찬하는 어조를 취하고 있다.

② [B]에서 화자는 시간의 경과를 의식하며 '세 다래 네 다래' 열린 '면화'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판단 방법

화자가 '오뉴월이 언제 가고 칠월이 반이로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 시간의 경과를 의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면화'를 보고 '하느님이 나를 위해 너희를 만들어주셨구나'라고 하니, '만족감'도 맞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③ [A]에서 화자는 '이내 궁'과의 관계를, [B]에서 화자는 '너희'와의 관계를 운명적인 것으로 여기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판단 방법

[A]의 경우 '하늘 삼긴 이내 궁을 설마한들 어이하리/빈천도 내 분이니 서러워해 무엇하리'라는 부분에서 화자가 '이내 궁'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인식과, '빈천(이내 궁)'을 자신의 분수로 여기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내 궁'을 '운명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이 맞습니다.

[B]의 경우 '너희'가 하느님이 '나'를 위해 만든 것이라 하니, 이 역시 '너희'와의 관계를 운명적인 것으로 파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④ [A]에서 화자는 '옳도다'라는 응답으로 '네 말'을 수용하는 태도를, [B]에서 화자는 '반이로다'라는 감탄으로 '패는 모'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판단 방법

'옳도다'는 수용, '반이로다'는 기대감이라는 태도와 그대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로다'의 경우 문법적 요소로 인해 '감탄'을 허용할 수 있겠네요.

⑤ [A]와 [B]에서 화자는 각각 초월적인 존재인 '하늘'과 '하느님'을 예찬하는 어조를 취하고 있다.

판단 방법

'예찬'은 무언가를 긍정적으로 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A]는 하늘이 자기를 가난할 운명으로 만들었다고 말할 뿐, 전혀 하늘을 긍정적으로 보거나 찬양하지 않습니다. [A]에서의 '하늘'의 역할을 파악해야 빠르게 고를 수 있는 선지였습니다.

반면 [B]의 경우, '면화'를 보고 기뻐하며 하느님이 만드셨다고 말하니, 이는 '예찬'을 맞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